

사회



“광주여성영화제 오세요”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광주여성영화제(11월 19일~21일)’ 거리홍보가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에서 열렸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플래카드를 흔들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잊혀진 독립운동 사적지

오늘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광복회 광주·전남 176곳 조사

일본 신사·경찰서·형무소·시위 장소 등 안내판 조차 없어

광주·전남이 '의향(義鄕)'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보존과 활용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적지가 안내판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이 일어났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도 사적지에 대한 정보코너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앞두고 2일 발표한 '광주·전남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실태와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원형보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구대상 사적지는 광주·전남지역 23개 지역 176곳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제 강압통치의 상징으로서 역사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곳임에도 방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 세워진 현충탑(우리 위한 영의 탑) 자리는 애초 일제가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위해 세운 '광주신사'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 안내판에는 한국 전쟁 때 전몰장병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충장서립 자리도 1908년 일제 강압 통치기관인 광주경찰서가 설립된 장소로, 위치 확인 정도만으로도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현재는 어떤 흔적도 없다. 또 독립지사들이 투옥·살해됐던 동명동 '광주형무소' 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위치했던 '일본헌병대 광주본부' 등에 대한 안내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시위장소 등에도 안내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1929년 11월 1, 3일 한국·일본 학생들의 충돌이 일어나 광주학생운동 시발이 된 '광주역'터에는 광주학생운동의 현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또 1929년 11월3일 한국·일본 학생들이 대치하던 대의동 토교(흙다리)자리, 3·1운동 만세시위지인 동구 불로동 '장터', 일제시대 '광주농업학교'수피아여학교 '송일학교' 등 학생들의 시위가 발발했던 곳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가로수 1위는 은행나무

값 싸고 관리 편해 전체 34%... 2위는 느티나무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산동 한 음식점 앞에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 주변. 시민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찡푸린 채 코를 움켜잡고 있었다. 바다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에서 풍겨져 나오는 불쾌한 냄새 때문이다. 매년 가을마다 은행나무가 심어진 광주 시내 곳곳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바다에 더럽혀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바다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밟으면서 흘러나온 노란색 열매즙으로 바닥이 더럽혀지고, 은행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 값이 싸고, 관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가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내 전체 가로수 12만3000여 그루 중 은행나무가 4만1000여 그루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느티나무(2만6000여 그루, 21%), 이팝나무(1만2000여 그루, 10%), 메타세콰이어(1만여 그루, 8%), 왕벚나무(7900여 그루, 6%), 중국단풍(4700여 그루, 4%) 순이었다. 이날 현재 은행나무 목목은 한 그루당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높이가 1m 이하인 작은 은행나무는 1만원 미만에 팔리기도 한다. 이처럼 저렴한 은행나무는 상처가 발생했을 때 재생력이 강하고, 환경오염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도심 가로수로 제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삼성전자 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채용

MOU 연내 체결

미래의 기술 명장을 양성하고자 올해 처음 문을 연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삼성전자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된다. 삼성전자(사장 최지성)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박근혜)는 현재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채용 예정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우선 채용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11~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선발 규모는 1학년 전체 정원의 3~5%인 100~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발 결과

를 보고 매년 채용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채용 예정자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학교에서 추천하면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채용 예정자로 선발되면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삼성전자로 부터 500만원 가량의 학업 보조비를 지원받고, 방학 중에는 삼성전자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또 학기 중에는 삼성전자의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이수하게 되며 2013년 2월 졸업과 동시에 마이스터고 출신 1기생으로 삼성전자에 최종 채용된다. 물론 병역의무 대상자는 군 복무 이후에도 복직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연행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5분 / 해질 17시 37분 / 달돋이 03시 18분 / 달질 15시 22분

얼음 열고 서리

내륙과 산간지방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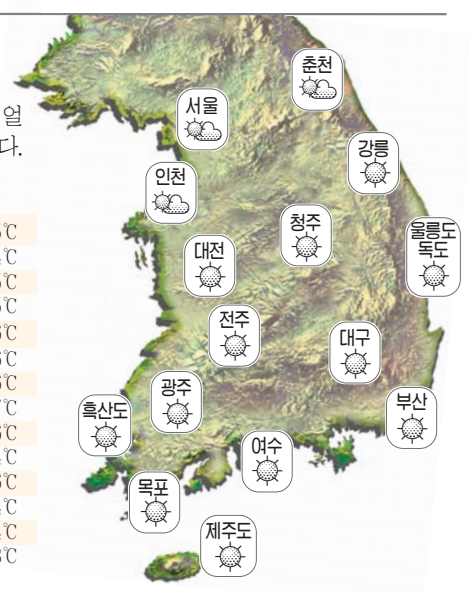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data for various cities: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옥산.

Table with tide information: <오전> 바다, <오후> 바다, including high/low tide times and direction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주간날씨> showing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days 4 through 9.

Advertisement for SK Card Touch 1 Card, highlighting benefits like 250,000 won for customers and various services.

19개 사이버대학 9만 3378명 모집.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하는 사이버대학이 다음 달부터 2011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개 사이버대

Large advertisement for 'Good Protection' (좋은 보청기) hearing aids,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JHR.

Advertisement for '가맹점 모집' (Franchise Recruitment) for a food business, listing various menu items and contact details for Kwangju Jeonnam Branch.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featuring '이앤지 방수'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I&N Engineering.